



‘4대강 사업 반대’ 생명평화선언

조계종 스님 5000명 서명... 무분별 개발정책 근절 촉구

5000여 조계종 스님이 정부에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7월 8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스님 5000여 명이 동참한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00여 조계종 스님을 대변해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등이 자리했다.

청화 스님은 “문수 스님은 강에서 돈을 얻으려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잃고, 강에서 부를 찾으면 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놓친다는 것을 깨닫고 소신공양을 한 것”이라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청화 스님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취지에 대해 “4대강 개발중단, 사회부패척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의 유언을 남긴 채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과 의지를 계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이 널리 퍼져 생명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청화 스님은 “종단 대다수 스님의 뜻이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향을 일으켜 친재벌 정책이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용 스님이 낭독한 생명평화 선언문에서 스님들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보살행을 이어받아 생명평화의 전기가 마련될 때까지 정진할 것이라며, 특정 구단 1곳을 시비적으로 지정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환경과파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스님들은 국민에게 “선진화·세계화 추세에서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에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스님들은 선언문에서 “문수 스님

의 소신공양이 못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고자 했던 대자비심의 발로였다”며 “불교도들의 무지와 무관심, 무능력을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死大(사대)강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며 “48년간 동안 만들어진 4대강이 2년반 만에 한시적인 정치집단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4대강을 죽이는 정책에 항거하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 스님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수경 스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사부

대중이 모두 그 짐을 나눠 질 때”라며 “5000여 스님이 힘을 모아 수경 스님의 뜻을 이어가다보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지관 스님은 답했다.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한 스님은 직할교구 928명, 중앙총회 81명 등 4812명이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선언문에 대한 동참의 뜻이 전달되고 있어 조계종 스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반대에 뜻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4대강불교연대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절차적 문제, 법적 타당성 검토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영담 스님 참석말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4대강사업 지지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영담 스님에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7월 8일 오전 열린 총무회의에서 영담 스님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장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총무부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성타 스님도 본사주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에 배석했던 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은 영담 스님에게 ‘오후 2시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쪽·저쪽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까지 말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영담 스님에게 4대강 지지 발언 자리의 참석을 우회적으로 만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무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한 총무부장의 행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종섭 기자



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한마당 잔치. 광주 무각사와 광주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한 재한(在韓)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불자들을 위한 법회한마당에서, 법회 후 발야구 경기를 마친 두 팀의 스리랑카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야구 경기를 처음 해봤다. 관련기사 10면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연대 “영담 스님 사퇴하라”

영담·성타 스님 “4대강 지지” 물의

조계종 스님 5000여 명의 생명평화선언이 있는 날,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불교사 주지 성타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위원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은 7월 8일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은 종교갈등 사안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친환경 개발의 중지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영담 스님의 기자회견은 문수 스님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자, 선언에 동참한

5000여 수행자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불교연대는 “영담스님은 총무부장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장과 동국대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영담 스님의 참석이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종교인도지원위원회는 9일 공문을 통해 “영담 스님의 참석은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연 기자

불교평화 공동대응

대구 불교계 한뜻

대구지역 불교계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계속된 불교평화 움직임에 한 마음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구 동화사 본부사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100여 명은 7월 7일 동화사에서 종교평화와 불교평화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구총의 불교평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기독교계의 공인된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불교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화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거점지역과 교구본사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일반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교평화교육을 펼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동화사 ‘통일대불’이 대구지하철 참사를 초래했다” 등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주장이 담긴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는 등 불교평화를 계속 해 왔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후원 잇달아

군종교구에 가슴 따뜻한 후원금 답지

“젊은 군인 불사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요.”

“군포교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여력이 닿는대까지 불사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종교구 최대 속원사업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무의탁 독거노인이 생활수급비를 모아 전달하고, 집안의 금·은 패물을 모아 교구에 기증하는 등 따뜻한 후원이 줄이 줄이 잇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 전해준 기회과장은 “6월 중순경 교계 언론의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 안내를 봤다는 부산의 불자부부가 장통 속에 몇 십년 간직했던 결혼 패물과 자녀들의 돌반지, 퇴직기념 황금열쇠 등 시가 수백만원 상당의 패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패물과 함께 전달할 메모에 “드디어 불법 보시의 인연을 만나,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에 동참하는 인연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 육군훈련소 법당을 잘 지켜 달라”고 적었다.

전 기회과장은 “교구장 자광 스님이 패물이 담긴 함을 받아들고 감격해 직접 그 부부를 만나 감사의 인

사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기증자의 정중한 사양으로 마음으로부터 신해야 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한 무의탁 독거어르신과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조금이라도 군포교에 보탬이 된다면 힘이 없겠다”며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 모은 24만원과 52만원을 군종교구에 보내오기도 했다.

또 서울 영등포의 한 불자부부는 함께 불자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지만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는 불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102만원을 전달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십시일반 정성으로 보내준 불자들의 정성에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바라는 마음, 전법포교사에 대한 애정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며 “군종교구 대중은 육군훈련소 불사와 군포교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에는 100~1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6월 현재까지 약정을 포함해 34억원이 모금됐다. (02)749-8646

조종섭 기자

- ▶9 현장·구직자 템플스테이
- ▶11 이상돈 교수 4대강 특강
- ▶14 선지식·정안 스님

H0+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명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오직~ 현불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중) (대)

신제품

■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연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천지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